

**발제 1: “AI 시대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 김지희 교수 (KAIST 기술경영학부)
- 본 발제에서는 인공지능(AI)의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계를 논의합니다. 증기기관, 전기, 인터넷과 같은 범용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관점에서 AI가 가져올 수 있는 시나리오별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기술적 혁신이 실제 생산성 지표의 향상으로 연결되기까지 발생하는 구조적 시차와 그 원인을 탐색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낙관론과 신중론을 바탕으로 거시적 관점의 불확실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각계의 견해를 토대로 기술적 혁신과 현장 적용 사이의 괴리에 주목하여 AI 경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합니다.

**발제 2: “AI 전환과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와 과제”**

- 권영선 교수 (KAIST 기술경영학부)
- AI가 인간의 육체적·지적 노동을 대체하며 기존 경제 시스템의 생산-소비 균형을 흔들고, 실업 증가와 소득 감소로 소비 위축 및 소득·부의 격차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산업혁명과 달리 AI는 인간 고유의 영역까지 대체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경제·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과세와 재분배를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AI·양자·바이오 등 신기술 투자, 공생의 경제 시스템 구축, 전일제 일자리 없이도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발제 3: “AI 시대의 비즈니스 전략”**

- 박성혁 교수 (KAIST 경영공학부)
-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설 만큼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은 거의 모든 산업과 경제 영역에서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기술(초지능)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국가와 기업은 AI를 어떻게 활용해

지속적인 경쟁우위와 번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다.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데이터의 흐름을 읽고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 구조를 재구성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본 발제는 AI가 기업의 가치 창출 방식과 시장 질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술과 데이터, 인재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전략적 역량 축적에 대해서 논의한다.

#### **발제 4: “AI 기반 경제적 의사결정과 인간의 역할 재조명”**

- 김민기 교수 (KAIST 경영공학부)
- 본 발제에서는 AI 기반 경제 혁신이 어떤 연결 구조를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한다. 산업별 사례를 바탕으로 자동화, 예측, 최적화가 가져오는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뿐 아니라, 데이터 편향, 목표함수의 불완전성, 설명가능성 한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취약성과 외부효과를 함께 점검한다. 또한 알고리즘 의사결정이 확산되는 과도기에는 책임소재, 노동 및 역량 재배치, 정보비대칭의 재구성, 신뢰와 수용성 문제 등 사회과학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끝으로 AI가 기업, 산업, 경제 생태계의 규칙을 재설계하는 국면에서, 경제주체로서 인간의 권리(통제, 설명, 구제)와 역할(감독, 보완, 공동설계)을 어떻게 재정의할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 제도적 시사점을 제안한다.